

제7장 독립운동

동석기 목사는 1918년 6월 조선 미(북) 감리교회 제11회 연회에서 경성 마포 삼개교회를 사임하였다. 이어 수원지방 남양구역(南陽區域)으로 파송을 받아 선교구역장(宣敎區域長) 및 남양교회[南陽教會, 경기도 화성시 남양시장로 43(남양동) 남양감리교회] 제8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남양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남양구역 선교구역장인 그는 오산교회[경기 오산시 시장길 38(오산동)]와 제암리교회[경기도 화성시 제암길 50(향남읍)]의 순회 담임 목사로도 사역하였다. 『조선 미감리교회 제10회연회록』(1918.6.)]



남양교회 취임 기념(1918, 웨슬리안타입즈, 2020.8.8.)

동석기 목사는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경성

중앙교회[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5(인사동) 하나로빌딩 중앙감리교회] 전도사이며,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朝鮮中央基督教青年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9(종로2가) 서울 YMCA] 회우부 간사인 박희도(朴熙道)와 수원지방 독립운동 책임자였던 사립 삼일학교(三一學校) 교사 김세환(金世煥) 등과 교제하면서 조국의 독립에 관한 논의를 자주 하였다.



남양감리교회 예배당(웨슬리안타임즈, 2020.8.8.)

1919년 1월 20일(월) 경기도 이천읍교회[利川邑教會,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675번길 6 (관고동) 이천중앙감리교회]에서 겨울 지방사경회가 열렸다. 당시 사경회 강사는 동석기 목사였는데, 박희도 전도사가 동석기를 찾아

왔다. 이때 말씀 강론을 마친 후 동석기와 박희도는 사경회 강사 숙소에서 자연스레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 28대 대통령 윌슨[Thomas W. Wilson, 1856.~1924.]이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 national self-determination]’를 선포했습니다. 동감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독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거망동(輕舉妄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민족자결주의란, 파리 강화회의에서 윌슨이 제창한 14개 조의 평화 원칙으로, “각 민족은 정치적인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말한다.

[문] 맨 처음 그대가 이천에서 박희도를 만난 것은 언제인가? [답] 2월 10일경으로 생각된다.

[문] 어떻게 해서 이천에서 박희도를 만나게 되었는가?

[답] 이천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을 때 만났다.

[문] 그때 박희도는 무슨 말을 하든가?

[답] 이태왕(李太王, 고종) 국장을 당하여 천도교의 손병희(孫秉熙, 1861.~1922.) 등이 운동을 하고 있으니 예수교도도 그때에는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그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뒷날 말하겠다고 하였다.

[문]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하든가?

[답] ‘민족자결(民族自決)’ 같은 말을 하였으나, 그것도

분명하게는 말하지 않고 머지않아 자세한 말을 하겠다고만 했을 뿐이다.

[문] 그때 동경(東京, 도쿄)의 유학생 수백 명이 독립운동을 하였고, 우리 조선에서도 천도교에서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일어났을 때는 예수교도도 함께 일을 해야 한다고 박희도가 말하지 않던가?

[답] 그렇게 말하였으므로 나는 그것에 찬성했다. [국사편찬위원회, 「동석기 신문조서」.]

동석기 목사는 미국에서 10년을 살았고 신학을 공부한 후 귀국한 관계로 영어를 읽고, 쓰고, 해석하고, 그리고 말할 수 있었으므로 미국 신문을 구독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외교관들과도 친분이 깊었던 국제통(國際通)이다 보니 세계정세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만나면 그가 모임을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1일(토)이 되자 동석기 목사는 ‘독립선언식’ 장소가 태화관(泰和館, 일제 강점기에 음식점 겸 술집으로, 유명한 요리 집인 명월관의 부속 건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45(인사동) 태화빌딩)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1시간 30분이 늦은 오후 3시 30분경에 예정대로 탑골공원[塔谷公園,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99, 외 (종로2가) 파고다 공원]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미 오후 2시에 민족대표들은 없었지만, 경신학교[敎新學校,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 74(혜화동) 경신중·고등학교] 학생 정재용[鄭在鎔, 1886.~1976.]이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를 낭독한 후 젊은 학생들 중심으로 만세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다.



독립선언서(원본)- 문화재청 제공(민족문제연구소 보관, 한국일보, 2019.2.18.)

시위참여자들이 손에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독립만세(大韓獨立萬歲), 조선독립만세(朝鮮獨立萬歲)’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하고 있었다. 이때 동석기 목사는 대한문[大漢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정동) 덕수궁의 정문] 쪽에서부터 대한독립만세,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대열에 합류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목이 터지게 소리높여 대한독립만세,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어 남대문[南大門, 숭례문(崇禮門)의 별칭], 정동 미국영사관 앞, 광화문, 서대문을

거처 프랑스영사관, 총독관저(總督官邸) 등으로 다니며 만세 시위를 하였다. 그러면서 각 나라의 외교관들과 관료들을 만나면 독립선언문을 나누어 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일경에 체포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검거되어 신문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

[문] 그대는 금년(今年) 3월 1일 오후에 학생·군중에 가담하여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서 경성 시내를 돌아다녔는가? [답] 그렇다.

[문] 어디에서 군중 속에 들어가 어디까지 다녔는가?

[답] 남대문에서 대한문 쪽으로 갔었는데, 학생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오기에 그들과 만나게 되자, 나도 조선인으로서 그 군중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기에 그들과 합류하여 만세를 부르면서 모교[毛橋, 현재의 서린동과 무교동 사이의 교량으로 모전교(毛廛橋)라고도 했다.]에서 대한문으로 돌아오면서 만세를 불렀다….

[문] 3월 1일 언제쯤 경성에 왔는가?

[답] 오후 3시 반경이었다….

[문] 학생들이 대한문을 나와서 정동으로 향했을 때 그대도 그 뒤를 따라갔는가?

[답] 나는 간 뒤에 미국영사관 문 쪽으로 갔었다.

[문] 그대는 미국영사관에 가서 영사를 만났는가?

[답] 영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인이 문 쪽으

로 와서 만났다.

[문] 그때 그대는 무엇인가를 말했는가?

[답] 나 한 사람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많이 왔었다. 그때 미국인은 우리에게 무슨 용무로 왔는가, 자기들에게 와도 원조는 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나는 원조를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우리가 조선의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인정해 주기만 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동석기 신문조서」.]

삼일 만세운동으로 교회 중에서는 경기도 제암리교회[堤岩里教會,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길 50(제암리) 제암감리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가 컸다. 당시 제암리교회(본처 전도사 김교철)는 순회 담임 목사인 동석기의 체포 소식을 접하자 3월 15일(토)부터 밤마다 뒷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면서 만세운동을 벌였다. 4월 5일(토)에는 발안 장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시간에 교회 청년들이 강연한 후 발안 주재소[駐在所, 일제 강점기 시절 순사가 근무하던 경찰의 말단 기관, 현 파출소] 앞에서 “대한독립만세,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시작하였다. [이덕주(2007), 「삼일운동과 제암리사건」,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7호]

이때 발안 장터에 모여 있던 사람들도 “대한독립만세, 조선독립만세”를 따라서 외쳤다. 만세 소리에 당황

한 일경이 무력으로 만세 시위 사태(事態)를 진압하려고 가혹하게 매질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선두에서 대한독립만세,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제암리교회 청년 김순하의 배를 총검(銃劍)으로 순식간에 가르는 일을 자행(恣行)하였다. 이때 김순하는 쓰러졌지만, 피와 창자가 흘러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독립만세, 조선독립만세”를 잇따라 부르짖다가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동아일보』(2019.1.15.), “시체 타는 냄새가 밤새...” 제암리 학살사건의 충격; 권경률, 『독립기념관』, ‘한국인의 피속에 흐르는 함성’.]

열흘 후인 4월 15일(화) 오후 2시, 수원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보병 제20사단 39여단 제78연대 소속 아리타 도시오(有田俊夫) 중위가 무장한 헌병 30명을 인솔하고 제암리교회를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그리고 찾아온 이유를 밝혔는데, 발안 장터의 만세 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횡포(橫暴)를 사과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다.

“여러분, 내가 온 것은 발안 장터에서 발생한 김순하 살해사건을 사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15세 이상의 남자 신자들에게 모두 예배당으로 모이도록 빨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모두 모이면 내가 직접 사과를 하겠습니다.” [『동아일보』(2019.1.15.), 참조]

아리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던 15세 이상의 남자 신자 21명이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잽싸게 헌병들이 예배당 출입문에 못질을 해버렸다. 이어 미리 준비해 간 석유를 예배당 곳곳에 뿌린 후 불을 질렀으며, 불이 타고 있는 예배당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무차별(無差別)로 난사(亂射)하였다. 또한, 무참히 죽어가는 남편을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두 여인의 목을 칼로 베어 벗짚으로 불을 놓기까지 하였다. [권경률, 『독립기념관』; 『연합뉴스』(2019.3.10.), 참혹한 학살의 현장, 제암리.]

심지어는 교인들이 사는 32채의 초가에 불을 지르는 만행(蠻行)도 저질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주리(古州里)의 천도교인 6명을 칼로 난도(亂刀)질하여 그 시체를 불로 태우는 등 극악무도(極惡無道)한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이렇게 일제의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만행의 소식을 접한 선교사들은 치를 떨면서 분개(憤慨)하였으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연합뉴스』(2019.3.10.); 권경률, 『독립기념관』]

이때 캐나다 의료선교사인 스코필드[Dr. Frank W. Schofield, 석호필(石虎弼), 1889.~1970.] 박사가 4월 17일 (목) 제암리 현장으로 즉시 달려갔다. 그는 먼저 피비린내 진동한 생생한 살해 현장을 카메라(camera)에 담았다. 다음으로 친히 엉클어진 순교자들의 유골(遺骨)들을 들것에 실어 2km 정도 떨어진 향남읍 도이리(桃

李里) 공동묘지(共同墓地) 입구에 안장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원에서의 일본군 잔학(殘虐)행위에 관한 보고서[A Report on the Japanese Army Atrocities in Suwon]”를 작성하여 미국에 보내므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수원제암리참변; 권경률, 『독립기념관』]



일본에 의해 파괴된 제암리(왼쪽), 제암리교회 예배당(조선일보, 2017.4.14.)

동석기 목사는 3월 1일 만세 시위가 있었던 날에 체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신촌동) 연세대학교] 교수인 빌링스[Bliss W. Billings, 변영서(邊永瑞), 1881.~1969.] 집에서 3월 3일(월) 하룻밤을 잤기 때문이다. 이어 4일(화)에는 수원지방 감리사인 미(북)감리교 선교사 노블[William. A. Noble, 노보을(魯普乙), 1886.~1945.] 만났으며, 그날 밤에는 미국 성서 공회 조선지부 총무인 베크(Back)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석기 목사는 3월 14일(금)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위반죄로 구금된 상태에서 신문조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동석기는 3월 5일(수)부터 13일(목) 사이에 그의 행적에 대하여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기에 일경에 체포된 것으로 짐작된다.

[문] 그대는 그날 종로 네거리에서 미국인 베크(Back)라는 자를 만났는가? [답] 만났다.

[문] 그자는 전부터 아는 사람인가?

[답]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목사이므로 알고 있다….

[문] 그대는 그자에게 이번 독립운동에 대한 소감을 물었는가?

[답] 의견을 물었던바, 자기는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하였다.

[문] 그때 그자는 선언서 1장을 달라고 하지 않던가?

[답] 그렇게 말했으므로 4일 밤에 한 장을 주었다.

[문] 베크(Back)는 선언서를 받더니 어떤 소감을 말했는가?

[답] 독립선언은 큰 후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 선언서에 의하면 후원이 없으므로 독립은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문] 그대는 3월 4일에 노블(Noble)이라는 미국인을 방문했는가? [답] 그렇다.

[문] 그자는 목사인가?

[답] 그렇다. 미(북) 감리교회 소속 목사이다.

[문] 그에게 조선 독립운동에 대한 소감을 물은 일이 있는가?

[답] 나는 그때 노블(Noble)에게 ‘조선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좋은 일이나?’라고 물었던바, 그 사람은 당신은 목사이므로 그런 일에 관계하지 말고 ‘속히 임지로 돌아가서 교무를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으므로 나는 조선 독립운동에 대한 소감을 더 물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헤어졌다….

[문] 그대는 빌링스(Billings)라는 자를 아는가?

[답] 알고 있다….

[문] 그자의 직업은 무엇인가.

[답] 연희전문학교의 교수이다?

[문] 그대는 어떤 관계로 그자를 알고 있는가?

[답] 같은 미(북) 감리교회 소속 목사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그의 집에서 잤다.

[문] 그때 며칠간 잤는가? [답] 3월 3일 하룻밤 잤다.

[문] 그때 그에게 독립운동에 대한 소감을 물었는가?

[답] 물었다….

[문] 그대는 왜 외국인에게 그 의견을 물었는가?

[답] 그것은 이처럼 시끄러운 시기이므로 인정상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문] 그대는 오랫동안 외국에 유학하고 있었는가?

[답] 그렇다. 약 10년 정도 미국에 있었다. [작성일 1919년 3월 14일, 서기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長瀬誠之助, 신문자 조선총독부 검사 山澤佐一郎]

調書	
右被告人ニ對スル 八 年三月十日 朝鮮總督府檢事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列席ノ上檢事ハ被告人ニ對シ訊問ヲ爲スコトヲ左ノ如シ	被告人 長瀬誠之助 事件ニ付大正 京城地方裁判所檢事局ニ於テ
問 氏名、年齡、身分、職業、住所、本籍地及出生地ハ如何	山澤佐一郎

동석기 신문조서(국사편찬위원회)

동석기 목사의 독립운동에 대하여 1995년 감리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바탕으로 ‘사랑, 선교, 일치’를 사시로 하여 창간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 신문인 『기독교 타임즈(The Christian Times)』(2010.3.4.)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동석기 목사는 삼일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민족대표로 서명하였으나 33인에 들어가지 못한 지각서명자(遲刻署名者)이다.”

‘동석기 목사가 삼일 만세운동 당시 지각서명자’라고 하는 견해에 관하여는 『기독교 타임즈』 뿐만 아니라 필자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기에 동의한 견해로 여러 번 주장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동석기는 삼일 만세운동으로 검거되어 신문을 받을 때 검사에게 자신의 입으로 주저하지 않고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다. 서명 요청을 받기는 받았지만 거절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주장의 기록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또한, 동석기 목사는 ‘독립운동가’라는 이유로 그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놀라게 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그것은 검사가 총독정치(總督政治)에 관한 견해를 물었을 때의 대답이다. 그 대답은 조선을 강점하여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의 정치적인 제도이므로 ‘반대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기대했는데,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찬성한다”라는 의미의 답변을 하므로 안타까움을 남긴다고 생각된다.

[문] 그대가 조선의 독립운동을 계획한 것은 언제인가?

[답] 그것은 2월 15일(토)부터 20일(목)경 사이에 수원

군(현 수원시)의 김세환이라는 사람이 남양에 와서 민족자결이란 것에 대하여 말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박희도로부터 이천에서 이야기(1919.1.20.)를 들은 일이 있다.

[문] 그대는 그달 27·8일경에 김세환을 만났는가?

[답] 그렇다. 우리 집에 왔었다.

[문] 무슨 불일로 왔었는가?

[답] 그가 나에게 종이에 ‘주소·성명을 쓰고 도장을 찍어 달라’고 요청하기에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민족자결의 청원을 일본 정부에 하는 청원서라고 하였다.

[문] 그 종이는 어떤 종이였는가?

[답] 궤지(鄣紙)였다. [궤지는 닥나무의 껍질로 만든 일본 종이인 미농지에 궤선을 박은 종으로 주로 공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였다.]

[문] 많은 사람의 성명이 쓰여 있었는가?

[답] 아직 한 사람도 쓰여 있지 않았다.

[문] 그대는 그것에 대하여 그 종이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 주었는가?

[답] 그런 일은 충분한 자기 마음의 각오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거절하였다.

[문] 그대는 총독정치에 대하여 어떻게 감상(感想)하고 있는가? [답] 대체로 찬성한다. [국사편찬위원회, 「동석기

신문조서」.]

더욱이 의심스럽고 이상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윤치호[尹致昊, 1865.~1945.]가 작성한 영문일기 때문이다. 윤치호와 동석기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이로 동석기가 내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윤치호를 초청하여 강단에 서게 할 정도로 친분(親分)이 있었다. 그런데, 지인(知人)인 윤치호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발견되어 매우 혼란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아침에 변훈(邊煥)이 전해준 바로는 동석기 목사가 자신이 빌링스(Billings) 목사, 노블(Noble) 목사, 매쿰(McCune) 목사와 독립시위에 대해 협의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고 한다. 모두 믿기 힘든 이야기다!”



제암감리교회 예배당과 삼일운동 순국기념관(제암교회 홈페이지)